경제교육연구
제33권 2호(2026. 8, pp. 173-208) http://dx.doi.org/10.37060/KJEE.33.2.7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수직적 연계성

황 선 호*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학교 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중심의 분석 개념이 형성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경제 체제 비교로 설명 방식이 전환되며,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다시 시장 원리, 시장균형,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학교급에 따라 중심 설명 방식이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교과서 분석 결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거나 병치하는 서술이 자주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를 단선적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장경제를 가격 기구와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분석 개념으로, 자본주의를 제도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체제 개념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2022 사회과 교육과정, 자본주의, 통합사회, 시장경제, 수직적 연계성

*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sunho3137@scnu.ac.kr).

Ⅰ. 서론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경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계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교육에서는 자원의 희소성, 선택, 교환, 가격 형성, 시장과 정부의 관계, 경제 체제의 변화 등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 용어가 여러 학교급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개념 학습이 계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전 학교급에서 학습한 개념이 이후 학교급의 학습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되는가이다. 이는 핵심 개념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반복하고 심화한다는 나선형 교육과정 및 교육 경험의 계열성 논의와도 연결된다(Bruner, 1960; Dewey, 1938; Tyler, 1949; Taba, 1962). 이러한 관점에서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은 개별 내용 요소의 포함 여부뿐만 아니라 학교급 간 설명 방식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22)의 경제 관련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대체로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이 중심적으로 제시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원의 희소성과 선택,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 무역과 상호 의존 관계 등이 다루어진다. 중학교에서는 합리적 선택, 기업의 역할,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의 변동 등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경제 현상을 희소성, 선택, 시장, 가격, 상호 의존이라는 분석 언어를 통해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 이르면 경제 영역의 설명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의 첫 번째 성취기준 [10통사2-03-01]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고 제시한다. 이 성취기준은 경제 현상을 가격 기구나 시장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경제 체제 비교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형성된 시장경제 중심의 분석 틀과는 다른 역사적·제도적 체제 서술의 성격을 가진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과 교육은 경제 현상을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조건, 역

사적 변화, 시민적 판단의 문제와 연결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체제 서술이 경제교육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전 학교급에서 형성된 시장경제의 기초 분석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임금노동, 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제도 변화, 역사적 전개를 포함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두 개념은 현실에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동일한 설명 층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개념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경제 현상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경제와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은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 가격 기구, 시장균형, 시장 실패, 정부 개입 등 경제학적 분석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의 계열 속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어떤 설명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들 설명 방식이 학교급 간 학습 계열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학교에서 형성된 시장경제 중심의 분석 언어가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고등학교 경제에서 어떻게 유지, 전환,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사회「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영역 내부의 개념 위계와 설명 방식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황선호, 2026). 황선호(2026)는 10학년 통합사회 단원 내부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이 충분한 매개 없이 병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이 단원 내부의 수평적 정합성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 범위를 단원 내부의 수평적 정합성에서 학교급 간 경제 개념의 수직적 연계성으로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 과목 사이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어떠한 설명 방식 속에서 제시되는지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두 개념의 관계가 실제 서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통합사회 단원 내부의 개념 병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급 간 설명 방식의 연계 방식과 그 교과서 구현 양상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중 어느 개념이 더 타당한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안에서 어떤 순서와 위계로 제시되며, 학교급 간 학습 계열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거나 단절되

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경제 현상을 어떤 중심 설명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중심 분석 틀이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체제 비교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시장경제 분석 틀이 다시 중심에 놓이는 점이 학교급 간 경제 개념의 수직적 연계성에 어떤 쟁점을 제기하는지 논의한다. 넷째,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서술하며, 이러한 서술이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 연계형 중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가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제시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사회과 경제교육의 설명 방식과 수직적 연계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개념 층위를 교과서 분석 기준으로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성취기준을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 과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학교급 간 중심 설명 방식의 전환 양상을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실제 서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 독점 자본주의와 대공황 서술에서 나타나는 설명 층위의 혼동 문제를 검토한다. Ⅴ장에서는 사회과 경제 영역의 서술 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사회과 경제교육의 설명 방식과 수직적 연계성

1. 경제 개념 학습과 중심 설명 방식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개념 학습은 개별 용어의 반복 제시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 틀이 학교급에 따라 어떻게 누적되고 심화되는가이다. 경제 현상은 희소성, 선택, 교환, 가격, 시장균형, 정부 개입, 제도적 조건 등 여러 수준의 개념이 결합되어 이해되므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은 낮은 학교급에서 형성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상위 학교급에서 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계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나선형 교육과정과 학습 경험의 계속성 및 계열성 논의와 연결된다. Bruner(1960)는 핵심 개념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반복과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 Dewey(1938), Tyler(1949), Taba(1962) 역시 교육 경험의 연속성과 계열성을 강조하였다. 경제교육에서도 희소성, 선택, 비용과 편익, 시장, 가격, 경쟁, 정부의 역할 등 핵심 개념이 학교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0). 또한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경제 원리를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Walstad, 1992; Siegfried & Meszaros,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열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 설명 방식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중심 설명 방식이란 특정 학교급이나 단원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핵심 개념군과 서술 방향을 의미한다. 학교 경제교육에서 경제 현상의 기초 분석은 대체로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시장균형, 경쟁, 시장 실패 등은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과 시장 전체의 자원 배분 결과를 연결하는 기본 언어이다.

반면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심 설명 방식은 역사적·제도적 체제 서술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설명도 사회과 교육에서 필요하지만, 경제교육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체제 서술이 시장경제의 기초 분석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013).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장경제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 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체제 비교가 단원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동일 개념의 심화라기보다 중심 설명 방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식의 전환을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수직적 연계성 문제로 검토한다.

2.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개념 구분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설명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한다. 두 개념은 현실에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설명 층위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를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층위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조건을 설명하는 체제적·역사적 층위를 의미한다. 위계는 낮은 학교급에서 형성된 기초 분석 개념이 상위 학교급에서 더 복합적인 체제 이해로 확장되는 학습상의 배열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각각 어떤 설명 층위에서 제시되고, 두 개념의 관계가 학교급 간 계열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를 경제 주체의 분권적 의사결정,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시장경제는 경제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Smith(1776)는 분업과 교환, 경쟁, 가격 조정의 원리를 통해 상업사회(commercial society)에서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원으로 배치하는 다수의 교과서 서술과 달리, 스미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체제 명칭이 아니라 분산된 경제 주체들이 교환과 경쟁을 통해 상호 의존하고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Arrow and Debreu(1954)의 일반균형 이론은 유한차원 상품공간에서 볼록성, 콤팩트성, 대응의 연속성, 고정점 정리 등을 이용하여 경쟁시장 균형과 자원 배분 문제를 수리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시장경제가 특정한 역사적 체제의 명칭이라기보다 가격 기구를 통한 자원 배분의 분석 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임금노동, 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제도적 변화, 역사적 전개 등을 포함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그 해석은 시장경제보다 더 강한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가진다. Marx(1867)는 자본주의를 자본가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조건과 생산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Schumpeter(1942)는 자본주의를 기업가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동태적 체제로 보았다. Hayek(1988)와 Friedman(1962)은 각각 시장 질서와 경제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하였다. Braudel(1967, 1979)은 일상적 교환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와 독점·특권·권력 결합을 통해 초과이윤을 전유하는 자본주의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본주의가 단일한 분석 모형이라기보다 역사적·제도적·규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온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 구분의 분석상 필요성은 교과서에서 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역사적 단계로 제시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명칭들은 가격 기구와 수요·공급의 조정 원리를 설명하는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이라기보다 생산 조직, 기업 결합, 국가 개입, 금융 구조,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역사적 체제 서술에 가깝다. 특히 독점 자본주의는 미시경제학의 시장구조로서 독점이라기보다 자본의 집중과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 시장지배력,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재편되는 역사적 국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구분하면서도 양자의 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중 어느 개념을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과 자본주의의 체제 서술이 어떤 순서와 위계로 제시되는가이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한 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변화를 다루는 구성은 분석 개념에서 체제 개념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역사적 단계 서술이 이전 학교급에서 형성된 시장경제의 분석 언어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채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기준을 불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혼동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설명 층위에 속하는 개념을 동일한 수준에 배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나 유일한 개념 규정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두 개념이 어떤 위계와 관계로 제시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구분으로 활용한다.

3. 분석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성취기준과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선택 과목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중심 설명 방식과 서술 방식을 검토한다. 교과서 분석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념 구성이 실제 학습 자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은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본문 서술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의 단위는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이며, 교과서 분석의 단위는 자본주의 정의, 역사적 전개, 경제 체제 비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을 다루는 본문 서술이다.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 범주와 분석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범주는 앞서 논의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임금노동, 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제도 변화, 역사적 전개를 포함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의 등장 여부만을 확인하지 않고, 두 개념이 어떤 설명 층위와 위계에서 제시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교과서 분석에서는 개별 문장의 표현만을 기준으로 유형을 판정하지 않고, 해당 단원의 서술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떤 관계로 제시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항목은 첫째, 자본주의의 정의, 둘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서술, 셋째,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비교, 넷째,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설명, 다섯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결하는 매개 개념의 제시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교과서가 두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지, 병렬적으로 배치하는지, 부분적으로 연결하는지, 또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제도적·역사적 조건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설명 방식 분석 범주

분석 범주	분석 질문
중심 설명 방식	해당 학교급 또는 단원에서 경제 현상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경제 체제 비교 중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되는가?
개념 계열성	이전 학교급에서 학습한 개념이 다음 학교급에서 심화되는가, 아니면 다른 설명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대체되는가?
시장경제 분석 도구	희소성, 선택, 수요와 공급, 가격, 시장균형, 경쟁, 시장 실패, 정부 개입 등의 개념이 경제 현상 설명에 사용되는가?
자본주의 체제 서술	자본주의가 사유재산, 생산수단의 소유, 임금노동, 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제도 변화, 역사적 전개와 연결되어 설명되는가?
매개 개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소유권, 경쟁, 가격 기구, 기업, 정부 개입, 시장구조, 제도 변화 등의 개념이 제시되는가?
최종 유형	위 기준들을 종합할 때, 교과서 서술은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 연계형 중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교과서 구현 양상은 분석의 출발점이 아니라 위의 분석 범주와 분석 항목을 적용한 결과로 도출되는 최종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서술을 네 가지 유형, 즉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 연계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동일시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나 두 개념의 설명 층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병치형은 두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부분 연계형은 두 개념의 관련성을 일부 설명하지만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 정부 개입, 제도 변화 등 매개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결하지는 못하는 경우이다. 넷째, 연계형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제도적·역사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적 서술과 경제학적 분석 개념을 일관된 설명 방식 속에서 연결하는 경우이다. 다만 실제 교과서 서술은 하나의 유형으로 완전히 환원되기보다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의 지배적인 서술 방식을 주된 유형으로 판정하고, 다른 유형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 요소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단순한 출현 여부가 아니라 두 개념이 어떤 설명 방식과 학습 계열 속에서 제시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각각 어떠한 설명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명 방식이 학교급 간 학습 계열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두 개념의 관계가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 연계형 중 어떤 유형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Ⅲ.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설명 방식 전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정합성은 개별 내용 요소의 포함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 학교급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중심 설명 방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전 학교급에서 형성된 분석 언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성취기준을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경제 과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중심의 분석 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체제 서술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후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시장경제 분석 틀이 어떻게 다시 중심에 놓이는지를 살펴본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제 관련 내용은 경제 현상의 기초 개념을 학습자의 생활 세계와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희소성, 합리적 선택, 경제활동, 생산과 소비, 가계와 기업, 시장경제, 무역과 상호 의존 등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사회과 성취기준 [4사07-01]은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고 제시한다. 이는 경제 문제의 출발점을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로 설정하고, 이후 기회비용, 비용과 편익,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등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 분석 언어를 형성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시장경제 개념이 보다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성취기준 [6사11-01]은

>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

고 제시한다. 이 성취기준은 시장경제를 특정한 역사적 체제 서사로 다루기보다 가계와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관계로 제시한다. 또한 [6사11-03]에서는 무역의 의미와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는 국내 경제활동으로부터 국가 간 교환과 상호 의존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의 경제교육은 희소성과 선택에서 출발하여 가계와 기업, 시장경제, 무역과 상호 의존으로 이어지는 기초 분석 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초 개념이 보다 명시적인 경제학적 분석 언어로 확장된다. 이 단계에서는 합리적 선택, 기업의 역할, 시장의 의미,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성취기준 [9사(일

사)08-01]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다루며, [9사(일사)08-03]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설명 방식은 시장경제 안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 고용, 투자 등의 경제적 기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시장경제의 분석적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시장 가격과 관련된 성취기준이다. [9사(일사)09-01]은 시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루고, [9사(일사)09-02]는 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를 제시한다. 이어 [9사(일사)09-03]은

>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고 제시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상호 의존 개념이 중학교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 변동, 시장 조정의 분석 언어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제 관련 성취기준은 대체로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을 중심으로 누적적으로 제시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희소성, 선택, 가계와 기업, 시장경제의 기본 관계가 제시되고, 중학교에서는 합리적 선택, 기업의 역할, 시장의 의미, 수요와 공급, 가격 변동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 현상은 역사적 전개나 체제에 대한 서사로 제시되기보다는 경제 주체의 선택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가격 기구를 통한 조정 과정으로 이해된다.

2. 고등학교 통합사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고등학교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 이르면 경제 영역의 중심 설명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은 표제상 시장경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첫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가 핵심 탐구 대상으로 제시된다. 성취기준 [10통사2-03-01]은

>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고 제시한다. 이 성취기준은 경제 현상을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시장균형과 같은 기능적 분석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경제 체제 비교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 해설 역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들의 주장을 통해 다루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삶의 방식, 특히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학생들이 비교 평가하도록 한다"고 안내한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시장경제가 경제 주체의 선택과 상호작용,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다른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사회 단원 내부의 개념 정합성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다(황선호, 2026).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과 교육은 경제 현상을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조건, 역사적 변화, 시민적 판단의 문제와 연결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체제 서술이 경제교육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전 학교급에서 형성된 시장경제의 기초 분석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통합사회 성취기준과 해설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 비교가 함께 제시된다. 그러나 이들 개념이 어떠한 설명 층위와 위계 속에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도 확인된다. 적용 시 고려 사항은

>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 제시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표현은 시장경제의 문제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로 설명하기보다는 시장경제 체제 일반에 수반되는 문제로 이해하게 할 여지를 남긴다. 또한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자본주의 성립 과정에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들의 주장, 개인의 금융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인 변화 요인, 각 나라의 주요 교역 상품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탐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금융 의사 결정, 무역, 거시적 변화 요인이 하나의 학습 맥락 안에 함께 배치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분석 기준을 통해 연결되는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비교, 금융 의사 결정, 국제무역은 각각 다른 설명 층위에 속한다. 그러나 통합사회에서는 이들 개념의 위계와 관계를 매개하는 가격 기구, 자원 배분, 소유권, 경쟁, 정부 개입, 제도 변화 등의 연결 장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동일한 설명 층위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지는 성취기준 [10통사2-03-02]에서도 설명 방식의 전환이 확인된다. 이 성취기준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하도록 한다. 초·중학교 단계에서 합리적 선택은 희소성, 비용과 편익,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과 연결되는 분석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통합사회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분석 개념이라기보다 지속가능발전과 경제 주체의 규범적 책임을 논의하는 시민교육적 개념으로 재배치된다. 따라서 통합사회 경제 영역은 초·중학교에서 형성된 시장경제 중심의 기능적 분석 틀을 단순히 심화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경제 주체의 규범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규범 서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3. 고등학교 경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경제에 이르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격 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성취기준 [12경제01-02]는

>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파악한다."

고 제시한다. 해설에서는 "전통 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의 특징과 장점 및 한계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시장경제는 가격 기구와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성격은 미시 경제 영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취기준 [12경제02-01]은

>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고 제시한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한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의 개념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시장균형과 다양한 시장 분석으로 확장하는 구성이다. 또한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조세, 공공재, 소득 재분배, 경쟁 제한 규제와 공정 거래 등 경제학의 주요 분석 개념이 함께 제시된다. 이 점에서 고등학교 경제는 통합사회에서 약화되었던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을 다시 중심에 놓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단순히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틀을 반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시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다룬 뒤,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함께 분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경제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기초로 정부 개입,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경제학적 설명 방식을 확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등학교 경제는 초·중학교에서 형성된 시장경제의 분석 언어와 다시 연결된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전체를 보면,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틀과 고등학교 경제의 시장경제 분석 틀 사이에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자본주의 역사·체제 서술이 놓여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은 초·중학교에서 시장경제의 기초 분석 언어를 형성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로 설명 방식을 전환한 뒤, 고등학교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분석 언어를 다시 중심에 놓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시장경제-자본주의-시장경제 계열의 설명 방식 전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은 학교급이 상승함에

따라 동일한 핵심 개념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 학교급에 따라 중심 설명 방식이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희소성, 선택, 가계와 기업,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무역과 상호 의존 등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언어가 형성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비교,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면서 역사적·제도적·규범적 체제 서술이 중심에 놓인다. 이후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 가격 기구, 수요와 공급, 시장균형,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분석 틀이 제시된다. 이러한 전개는 학교급별 중심 설명 방식과 설명 층위의 차이라는 점에서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이 곧바로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사회는 교과의 성격상 경제 현상을 역사, 윤리, 정치, 사회적 쟁점과 연결하여 다루려는 통합적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합적 주제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가 이전 학교급에서 형성된 시장경제의 분석 언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되는가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과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기준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표 2> 학교급별 경제 영역의 중심 설명 방식

학교급 및 과목	중심 설명 방식	주요 개념	설명 층위 및 방식
초등학교 사회	시장경제의 기초 분석	희소성, 선택, 가계와 기업, 시장경제, 무역과 상호 의존	경제 주체의 선택과 상호작용 이해
중학교 사회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합리적 선택, 기업의 역할,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시장의 작동 원리와 가격 조정 이해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본주의의 역사·체제 서술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 체제 비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책임	역사적·제도적·규범적 관점에서 경제 체제 비교
고등학교 경제	시장경제의 경제학적 분석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가격 기구, 시장균형,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시장 원리와 공공 부문의 역할 분석

따라서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핵심 쟁점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되는가에 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설명 방식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특정한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확장적 주제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될 때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체제 이해, 고등학교 경제의 경제학적 분석은 상호 단절되지 않고 계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Ⅳ. 교과서에서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앞 장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학교급별 중심 설명 방식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의 실제 서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나타나는 공통적 서술 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동아출판(구정화 외, 2025), 리베르스쿨(박병기 외, 2025), 천재교육(박윤경 외, 2025), 지학사(안재섭 외, 2025), 비상교육(이영호 외, 2025), 미래엔(정창우 외, 2025), 아침나라(조지욱 외, 2025), 창비교육(조철기 외, 2025)의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이다. 본문과 표에서는 출판사명을 반복하지 않고, 각 교과서를 교과서 A~H로 표시한다. 분석 범위는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 가운데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비교를 다루는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기준은 Ⅱ장에서 정리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개념 구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를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보고,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임금노동, 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제도 변화, 역사적 전개를 포함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떤 설명 층위에서 제시하는지, 두 개념을 동일시하거나 구분하는지, 소유권·경쟁·가격 기구·정부 개입·제도 변화 등의 매개 개념을 통해 두 개념을 연결하는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서술하는지를 검토한다.

교과서 서술 유형은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 연계형으로 구분한다. 동일시

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설명 층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병치형은 두 개념을 구분하지만 논리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부분 연계형은 두 개념의 관련성을 일부 제시하지만 매개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연계형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제도적·역사적 조건을 일관된 설명 방식 속에서 연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자본주의 정의와 시장경제 분석 개념의 결합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함께 제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자본주의를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가격 결정, 경쟁,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직접 연결하는 서술은 동일시형에 가깝다. 교과서 A와 B는 이러한 경향이 비교적 분명한 사례이다.

교과서 A는 자본주의를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경제 원리”(p. 65)로 정의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역사적·제도적 조건을 포함하는 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원 배분과 효율성의 경제 원리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가격 기구와 시장 거래라는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이 자본주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교과서 B도 유사한 서술 방식을 보인다. 교과서 B는 자본주의를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해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p. 61)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결과 다양한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효율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자본주의의 제도적 조건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구분하기보다 자본주의 자체를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일시형의 성격이 강하다.

교과서 C와 G도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에 근거한 경제 체제로 설명하면서 시장 경쟁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자본주의 설명 안에 배치한다. 교과서 C는 자본주의를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 체제”(p. 69)로 설명한다. 이어 “각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진다”고 서술한다. 교과서 G도 자본주의를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 체제”(p. 66)로 정의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자본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 제도에 근거한 체제로 설명하지만,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개념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교과서 H는 자본주의를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p. 68)로 설명한다. 이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사유 재산권의 보장,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 이익 추구,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와의 결합을 제시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수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자본주의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적합한 경제 체제로 인정받아 왔다고 서술한다. 이 서술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완전히 동일시하기보다는 시장경제 체제와의 결합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부분 연계형의 요소를 보인다. 그러나 가격 결정, 상품 거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자본주의의 특징 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체제적 조건을 충분히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현실에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체로 사유재산, 이윤 추구, 경쟁, 시장 교환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는다. 따라서 교과서가 두 개념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두 개념의 관련성이 곧 동일성으로 제시될 때 발생한다. 시장경제는 가격 기구와 자원 배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이다. 반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임금노동, 자본축적, 시장과 정부의 관계, 역사적 변화를 포함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이다. 이 차이가 명시되지 않은 채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두 개념의 설명 층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시장경제의 결합

부분 연계형에 가까운 교과서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시장경제와 동일시하기보다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자본가-노동자 관계, 시장경제와의 결합을 통해 설명한다. 이 경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두 개념의 관계

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교과서 F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가진 자본가가 생산을 담당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한다(p. 66). 이어 자본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가 상품 생산을 매개로 하여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체제"로 서술한다. 이 서술은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동일시형과 구별된다. 또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과서 F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성격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한다. 다만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이라는 시장경제의 분석 원리와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라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조건이 어떤 설명 층위에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교과서 F는 부분 연계형에 가까우나, 병치형의 요소도 함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D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p. 65)로 정의한 뒤,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체제와 함께 운영된다"(p. 65)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 제도와 연결하고, 시장경제를 생산과 소비 결정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동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층위 차이를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어서 자본주의가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다시 자본주의의 직접적 작동 원리로 제시한다. 따라서 교과서 D는 두 개념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연계형으로 판정하기에는 제한적이며 부분 연계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서 E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자본가-노동자 관계로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한다. 교과서 E는 자본주의를 토지, 공장,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민간의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념에 근거한 경제 운용 방식으로 설명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중심으로 생산 활동과 이익 추구가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가진다고 서술한다(p. 70). 이어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자본주의의 소유 관계와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결합'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연계형에 가까운 요소를 보인다. 다만 이후 서술에서는 자본주의가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논리가 자본주의 설명 안으

로 다시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교과서 E는 연계형에 가장 가까운 부분 연계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사례들은 교과서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일정 부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 임금노동, 자본가-노동자 관계, 사유재산 제도는 자본주의를 단순한 시장 거래의 원리로 환원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서술에서도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자본주의의 제도적 조건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역사적·제도적 형태인지, 또는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설명 층위에 속하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분 연계형은 동일시형보다 진전된 서술이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개념 층위를 충분히 매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역사적 전개 서술과 시장경제 원리의 병치

교과서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제시한다. 일부 교과서는 이 과정에 독점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한계 논의를 함께 배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단계 서술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A는 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순으로 전개되었다”(p. 66)고 설명한다. 상업 자본주의는 상품 유통과 무역을 통한 이윤 추구로, 산업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과 생산 과정의 이윤 획득으로 제시된다. 산업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주장한 인물로 제시된다. 이러한 구성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자본주의 역사 서술 안에 배치하지만, 가격 기구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이 자본주의의 제도적·역사적 조건과 어떤 설명 층위에서 연결되는지는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교과서 H도 자본주의가 “시대에 따라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전개되었다”(p. 69)고 설명한다. 상업 자본주의는 신항로 개척 이후 교역망 확대와 중상주의 정책을 배경으로, 산업 자본주의는 산업 혁명 이후

공장제 기계 공업과 대량 생산을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후 시장 실패, 대공황, 케인스의 정부 개입, 수정 자본주의,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2008년 금융 위기를 순차적으로 다룬다(pp. 69-71). 이 서술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속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 원리는 뒤쪽의 경제 체제 비교에서 별도로 설명되므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의 일반 원리가 하나의 설명 방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서 B와 E는 애덤 스미스를 자본주의 역사 전개의 사상적 출발점으로 배치한다. 교과서 B는 스미스의 주장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 사상적 기초”(p. 62)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교과서 E는 “초기 자본주의의 사상적 근간”을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제시한다(p. 71). 이러한 서술은 스미스의 분업, 교환, 경쟁, 가격 조정에 대한 설명을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사상적 기초로 제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의 주창자로 곧바로 제시하는 방식은 스미스의 시장 조정 논의를 자유방임주의로 단순화할 여지가 있다.

교과서 D와 F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 독점 자본의 형성, 자본가와 노동자 간 갈등, 빈부 격차,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등을 함께 다룬다. 교과서 D는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로 “소수 기업의 독점 자본 형성,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p. 66)를 제시하고, 교과서 F는 독점 기업의 등장과 대공황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한계를 설명한 뒤 정부의 시장 개입과 수정 자본주의를 연결한다. 이러한 서술은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와 시장·정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 단계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사이의 관계를 가격 기구, 경쟁, 자원 배분, 소유 관계 등의 분석 개념을 통해 명시적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

교과서 C와 G는 시장 실패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 배치하고, 이를 정부 개입 논의와 연결한다. 교과서 C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중시되었고,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산업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상”(p. 70)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19세기 후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고 서술한다. 교과서 G도 산업 자본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였고, 이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인 시장 실패”(p. 67)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들 서술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을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 체제 개념의 관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교과서의 역사적 전개 서술은 자본주의가 시대별 경제 문제와 시장·정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과서는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데 비해, 각 단계가 가격 기구, 경쟁,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소유 관계, 제도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적 전개 서술은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체제적 조건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4. 독점 자본주의와 대공황 서술 문제

교과서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제시하며, 일부 교과서는 이 과정에 독점 자본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은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19세기 후반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과잉생산 또는 소비부족, 1929년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을 하나의 연속된 인과관계로 서술한다. 이 경우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라는 미시적 시장구조 문제와 대공황이라는 거시경제적 위기 문제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인과관계로 제시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독점 자본주의는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경제학적 개념인 독점(monopoly)보다는 힐퍼딩의 금융자본론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제시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단계론의 용어에 가깝다(Hilferding, 1910; Lenin, 1917).[1] 이는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의 집중, 기업결합, 금융자본의 성장,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가 강화된 역사적 국면을 가리키며, 개별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지배력을 갖는 상태인 독점과는 구별된다. 따

1)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은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를 분석한 저작으로, 주식회사, 카르텔과 트러스트,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융자본 형성 등을 다룬다. 레닌은 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생산 집중, 독점, 금융자본, 자본수출, 세계분할이 결합된 자본주의의 특수 단계로 설명하였다(Hilferding, 1910; Lenin, 1917).

라서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을 곧바로 신고전학파적 의미의 시장 실패로 환원하거나 이를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선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론적 맥락의 개념들을 충분한 매개 없이 연결하는 결과를 낳는다.

독점화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확대, 소득분배의 변화, 가격 및 임금 조정의 제약 등이 경기침체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독점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총수요, 고용, 금융시장,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도로 설명할 때 성립한다. 일부 교과서의 서술은 이러한 경로를 제시하기보다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과잉생산 또는 소비부족, 대공황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배열하는 데 그친다.

대공황을 단일한 역사적 단계나 시장구조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Mankiw(2022)는 대공황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원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공황은 단일한 발생 원인이 아닌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위축, 주식시장 붕괴, 주택투자 감소, 은행 파산과 금융중개 기능의 훼손,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실패와 디플레이션, 실질부채 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거시경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8종 가운데 교과서 F, D, H에서는 독점 자본주의와 대공황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서술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교과서 F는 독점 자본주의와 대공황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만, 독점 자본주의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교과서 D는 독점 자본의 형성, 자본가와 노동자 간 갈등, 빈부 격차를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연결하고, 대공황과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을 별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이 비교적 분명하다. 교과서 H 역시 독과점과 시장 실패를 설명한 뒤 대공황은 “주가 폭락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서술한다. 주식시장 붕괴는 대공황의 주요 계기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H의 서술은 대공황을 독점 자본주의의 직접 결과로 단정하는 서술과 구분된다.

반면 교과서 E, B, G, A, C의 서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점 자본주의와 대공황을 보다 강하게 연결한다. 첫째, 교과서 E는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 거대한 독점기업이 나타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자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유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다”라고 서술한다. 이 문장은 대공황을 독점기업

의 등장과 시장 작동 실패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무너진 사건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대공황의 복합적 원인을 독점과 시장 작동 실패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다.

둘째, 교과서 B는 “독점 기업의 횡포로 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서술한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는 특정 시장에서 제한된 경쟁으로 가격과 생산량이 비효율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인 반면, 대공황은 경제 전체의 산출, 고용, 금융, 통화, 물가가 동시에 악화된 거시경제적 사건이다. 따라서 교과서 B의 서술은 시장구조상의 문제와 거시경제적 불황을 구분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

셋째, 교과서 G는 시장 실패를 설명한 뒤, “이러한 상황은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으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이는 대공황을 정치경제학적 과소소비론 또는 과잉생산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에 가깝다. 대공황기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독점 자본주의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현대 거시경제학의 일반적인 교과서적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넷째, 교과서 A는 독점 기업 출현으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대공황의 발생으로 (...) 케인스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고 서술한다. 이 서술은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와 대공황기의 대량실업 문제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의 핵심은 미시적 자원배분 효율성의 회복이나 독점 규제라기보다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대량실업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거시적인 총수요 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 실패 개념으로 케인스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대공황의 거시경제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교과서 C는 소수 대자본의 독점과 구매력 하락, 과잉공급을 서술한 뒤 “이러한 상황에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라고 잇는다. 직접적인 인과 표현을 피했다는 점에서 서술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체 문맥상 독점, 구매력 하락, 과잉공급, 시장 실패가 대공황의 배경 조건으로 제시된다. 이 역시 대공황의 통화적·금융적 요인과 정책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일반적 사실처럼 제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일부 교과서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론적 맥락의 개념들을 충분한 매개 없이 연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서술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단계론에서 사용되는 독점 자본주의,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의 독점과 시장 실패, 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의 유효수요 부족과 정부 개입을 하나의 단선적 인과관계 안에 배치한다. 그러나 독점 자본주의는 특정 역사적 발전 단계를 뜻하고, 독점은 미시적 시장구조 문제이며, 대공황은 화폐·금융·지출·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시경제적 위기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이러한 사건과 개념들을 하나의 단선적 인과관계로 묶기보다 각각의 개념이 지닌 의미와 분석 범위를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5. 교과서 구현 양상의 종합과 소결

8종 교과서의 자본주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경제 체제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본주의는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가격 결정, 경쟁,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직접 연결되며,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와 거의 같은 의미로 제시된다. 둘째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개인적·사적 소유, 자본가-노동자 관계, 임금노동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본주의의 체제적 성격은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이후 설명에서는 시장 가격, 경쟁, 효율성 논리가 다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로 제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8종 교과서의 자본주의 정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시장경제 체제와 거의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통해 체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양자 모두 시장경제의 분석 개념과 자본주의의 역사적·제도적 개념을 일관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2)]

이상의 분석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따른 서술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대체로 동일시형, 병치형, 부분 연계형의 범위 안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연계형에 해당

2)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비교경제체제론의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다만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관계, 곧 자본가-노동자 관계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서술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교과서 A와 B는 자본주의를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가격 결정,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동일시형에 가깝다.

교과서 C 역시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 경쟁,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결합하여 설명하므로 동일시형에 가깝고, 병치형의 요소도 함께 나타난다. 교과서 D와 E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 또는 자본가-노동자 관계로 정의하고, 시장경제와의 결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부분 연계형에 가깝다. 교과서 F는 자본가-노동자 관계와 시장경제 원리를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분 연계형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양자의 설명 층위 구분은 제한적이므로 병치형의 요소도 함께 보인다. 교과서 G와 H는 각각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 체제와의 결합을 제시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설명 층위를 충분히 구분하여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병치형에 가깝고, 부분 연계형의 요소도 확인된다.

<표 3>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관계에 따른 교과서 서술 유형

주된 유형	보조 요소	해당 교과서	공통 서술 특징	판단 근거
동일시	-	A, B	자본주의를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가격 결정,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직접 연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설명 층위 구분이 약함
동일시	병치	C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 경쟁,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자본주의 설명 안에 배치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역사 서술이 결합되지만 매개 설명은 제한적
부분 연계	-	D, E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 자본가-노동자 관계, 시장경제와의 결합을 제시	두 개념의 층위 차이를 일부 드러내지만 체계적 연결은 제한적
부분 연계	병치	F	자본가-노동자 관계와 시장경제 원리를 함께 제시	소유 관계와 시장경제 원리의 설명 층위 구분은 제한적
병치	부분 연계	G, H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의 역사적 전개 또는 시장경제 체제와의 결합을 제시	자본주의 역사 서술과 시장경제 작동 원리의 관계가 충분히 매개되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앞 장에서 확인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설명 방식 전환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은 초·중학교에서 시

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틀을 형성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체제 서술로 전환되며, 고등학교 경제에서 시장경제 분석 틀이 다시 중심에 놓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연계되기보다 동일시되거나 병치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설명 방식의 전환은 실제 학습 자료에서도 충분히 매개되지 않은 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교과서 서술만으로 실제 수업과 학습자의 개념 이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두 개념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통해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는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수직적 연계성과 분석적 사고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서술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단순히 동일시하거나 병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개념의 설명 기능과 설명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는 가격 기구와 자원 배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분석 개념으로, 자본주의는 그러한 시장경제가 특정한 제도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온 체제 개념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형 서술이 강화될 때, 통합사회 경제 영역은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체제 이해, 고등학교 경제의 경제학적 분석을 보다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사회과 경제 영역의 서술 체계 개선 방향

앞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은 초·중학교에서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 언어를 형성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체제 서술로 전환된 뒤, 고등학교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경제학적 분석 틀을 다시 중심에 놓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거나 병치하는 서술이 주로 나타났으며,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연계형 서술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를 단선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미시적 시장구조 문제와 거시경제적 위기 설명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양상도 나타

났다.

이러한 논의는 통합사회를 경제학 원리 과목처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통합사회는 경제 현상을 역사적 변화, 제도적 조건, 윤리적 판단, 시민적 책임과 연결하여 다루는 과목이다. 다만 통합적 접근이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 층위에 속하는 개념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 제기는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초·중학교에서 형성된 시장경제 분석 언어와 충분히 매개되어 제시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하의 개선 방향은 핵심 개념의 반복·심화와 학습 경험의 계열성 논의(Bruner, 1960; Dewey, 1938; Tyler, 1949; Taba, 1962), 경제교육에서 핵심 개념의 점진적 확장을 강조한 논의(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0), 그리고 앞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서술 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 경제 영역의 서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배제하거나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보다 두 개념의 설명 기능과 설명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교육과정상 정합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는 가격 기구, 경쟁, 수요와 공급, 자원 배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분석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시장경제가 사유재산권,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기업 활동, 임금노동, 금융제도, 정부 정책,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체제 개념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연계형 서술 원칙의 강화

사회과 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동일시형이나 병치형보다 연계형 서술 원칙에 따라 제시될 필요가 있다. 동일시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같은 개념처럼 제시함으로써 두 개념의 설명 층위를 흐리게 만든다. 병치형은 두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더라도 양자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두 설명 방식을 단순한 순차적 내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연계형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본주의의 제도적·역사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경제 영역의 수직적 연계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연계형 서술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가격 기구, 경쟁, 자발적 교환, 수요와 공급,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먼저 설명하고, 이러한 시장경제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사유재산권, 계약, 기업 활동, 노동시장, 금융제도, 정부의

규칙 설정 등과 연결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특정한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조직된 체제적 형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 문제, 도시 빈곤, 독과점, 금융 불안정 등을 시장경제의 작동 조건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구성할 때 학생들은 역사적 변화와 경제학적 분석을 분리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제도적 조건의 변화라는 하나의 계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계열과 성취기준 서술의 조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은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체제 이해, 고등학교 경제의 경제학적 분석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룰 때에도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희소성, 선택, 가계와 기업,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 시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산업화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만 제시되기보다 분업의 확대, 시장 교환의 증가, 기업 조직의 성장, 노동시장의 형성, 생산기술의 변화, 도시화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결합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한 성취기준 서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제도적 조건을 이해하고, 산업화 이후 시장과 정부의 관계 변화가 경제 주체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 예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제도적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서술 방향을 보여준다. 또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 변화를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체제 이해를 연결한다. 기존 성취기준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위의 대안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제도적 조건”을 매개로 역사적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연계형 서술에 가깝다.

또한 경제 문제를 설명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같은 표현은 특정 조

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 자체에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등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등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수정은 시장경제의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다 정확한 경제학적 분석 언어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핵심은 시장이 어떤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며, 그러한 실패를 어떤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는 데 있다.

3. 교과서 서술 방식의 재정비

교과서의 단원 구성 역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개념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서술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 제도적 조건 → 역사적 변화 →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 시민적 판단의 순서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능적 분석을 기초로 삼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그 분석 틀이 현실의 제도적 조건 속에서 변화해 온 과정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룰 때에는 고정된 단계론적 서술보다 제도 변화의 관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들은 자본주의를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적 전개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 체제의 변화가 일정한 단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한계도 갖는다.

경제교육의 관점에서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 문제를 자본주의 일반의 추상적 특성

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제도적 조건과 그 보완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분석적이다. 예를 들어 산업화 초기의 노동 문제와 도시 빈곤은 노동시장 제도의 미비, 계약 관계의 불균형, 산업안전 규제의 부재, 사회보험 제도의 미발달 등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경쟁 제한, 진입 장벽, 규모의 경제, 시장지배력, 공정거래 제도의 필요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외부효과와 공공재, 규제와 조세, 국제 협력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역사적 문제를 도덕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경제학적 분석과 제도적 해결 가능성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재구성은 통합사회가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다. 통합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을 적절한 관계 속에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영역에서는 산업화, 제국주의, 노동 문제, 사회 운동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사회적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희소성, 선택, 시장, 가격 기구,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 현상의 작동 원리와 제도적 보완을 분석할 수 있다. 정치·윤리 영역에서는 경제적 자유, 평등, 책임, 지속가능발전, 시민적 판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이 통합사회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념이 어떤 설명 층위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개념 층위 구분, 설명 순서 조정, 연계형 서술 강화, 문제 설명 방식 개선, 통합 방식 재구성의 방향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사회과 경제 영역 서술 체계 개선 방향

개선 방향	핵심 내용
개념 층위 구분	· 시장경제는 기능적 분석 개념, 자본주의는 역사적·제도적 체제 개념으로 구분
설명 순서 조정	·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 제도적 조건 → 역사적 변화 →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 시민적 판단의 순서로 구성
연계형 서술 강화	· 두 개념을 동일시하거나 병치하지 않고, 작동 원리와 제도적 조건의 관계를 명시
문제 설명 방식 개선	· ‘필연적 문제’보다 시장 실패, 제도 미비, 정책 대응 등 문제 발생 조건과 대응 방식 명시
통합 방식 재구성	· 역사, 윤리, 경제 개념을 단순 결합하지 않고, 설명 층위와 적용 범위를 명시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학교급 간 계열 속에서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학교 사회에서는 희소성, 선택, 가계와 기업,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등 시장경제 중심의 분석 언어가 형성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경제 체제 비교가 중심에 놓이며,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 시장균형,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 → 자본주의 → 시장경제로 중심 설명 방식이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교과서 분석에서도 이러한 설명 방식의 전환은 충분히 매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는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 경쟁, 가격 결정,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직접 연결하여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와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다른 교과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나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체제적 성격을 드러냈지만, 시장 가격, 경쟁, 효율성 논리를 다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안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독점 자본주의, 시장 실패, 과잉생산 또는 소비부족,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를 단선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독점에 따른 미시적 시장구조 문제와 대공황이라는 거시경제적 위기 설명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단순히 동일시하거나 병치하는 방식으로는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수직적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경제는 가격 기구와 자원 배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기능적·분석적 개념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반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시장경제가 사유재산권,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기업 활동, 임금노동, 금융제도, 정부 정책,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체제적·역사적 개념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룰 때에는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단계 명칭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각 단계가 가격 기구, 경쟁,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소유 관계, 제도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향은 통합사회를 경제학 원리 과목처럼 재구성하거나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기

초 분석 언어로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역사적·제도적 변화를 해석하도록 두 개념의 설명 층위와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계형 서술이 강화될 때, 초·중학교의 시장경제 분석,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체제 이해, 고등학교 경제의 경제학적 분석은 보다 정합적인 학습 계열 속에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와 검정 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설명 층위와 학교급 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수업 과정이나 학습자의 개념 이해를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제공하는 개념 구성과 서술 조건을 분석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재구성 방식, 학생들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개념 이해, 그리고 교과서 서술 유형이 학습자의 경제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구정화 · 오정준 · 이재헌 · 이진희 · 강정구 · 송훈섭 · 홍용기 · 김형남 · 최지나 · 송성민 · 김태환 · 윤예린(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동아출판사.

박병기 · 김병선 · 김수정 · 이철훈 · 조수용 · 이은영 · 양현서 · 신희정 · 이한맘 · 신두인 · 황상표(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리베르스쿨.

박윤경 · 전보애 · 추정완 · 범영우 · 최준화 · 이성국 · 한보라 · 이윤구 · 강병희 · 채나미 · 김주환 · 심소현(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천재교육.

안재섭 · 박지운 · 박영경 · 이철욱 · 신복숙 · 최광희 · 김신철 · 유상철 · 고경수 · 황재성 · 박경일 · 김부현(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지학사.

이영호 · 박보람 · 이우평 · 최도성 · 서정일 · 윤정현 · 주우연 · 조명훈 · 하진봉(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비상교육.

정창우 · 문일호 · 신종섭 · 이수빈 · 이주은 · 박홍인 · 전정재 · 홍정민 · 박용우 · 김현정 · 박재현 · 김봉식(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미래엔.

조지욱 · 이정식 · 이효건 · 엄정훈 · 김경오 · 송민구 · 강은경 · 강혜원 · 노유리 · 이호균(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아침나라.

조철기 · 이정우 · 김병연 · 김대훈 · 김동규 · 김한승 · 김혁준 · 송원석 · 우선하 · 이은주 · 장준철 · 최영진 · 허진만(2025),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창비교육.

황선호(2026),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개념 구성의 정합성, 시민교육연구, 58(2), 61-81.

Arrow, K. J. and G. Debreu (1954), 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Econometrica*, 22(3), 265-290.

Braudel, F. (1967), Civilisation matérielle et capitalisme, Armand Colin, P. M. Ranum (Trans.) (1977), *Afterthoughts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Capitalis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raudel, F. (1979),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Armand Colin, S. Reynolds (Trans.) (1982-1984),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s. 1-3, Harper & Row.

Bruner, J. S.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2nd ed.,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Macmillan.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yek, F. A.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ilferding, R. (1910), Das Finanzkapital: Eine Studie über die jüngste Entwicklung des Kapitalismus, Wiener Volksbuchhandlung, M. Watnick and S. Gordon (Trans.), T. Bottomore (Ed.) (1981), *Finance Capital: A Study of the Lates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Routledge & Kegan Paul.

Lenin, V. I. (1917), Империализм, как новейший этап капитализма, Жизнь и Знание, Lenin, V. I. (1963),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Lenin's Selected Works, Vol. 1, 667-766, Progress Publishers.

Mankiw, N. G. (2022), *Macroeconomics*, 11th ed., Worth Publishers.

Marx, K. (1867),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issner, B. Fowkes (Trans.) (1990),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1, Penguin Book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013), The College, Career, and Civic Life (C3)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State Standards: Guidance for Enhancing the Rigor of K-12 Civics, Economics, Geography, and History, NCSS.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Brothers.

Siegfried, J. J. and B. T. Meszaros (1997), National Voluntary Content Standards for Pre-College Economics Edu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7(2), 247-253.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 Strahan and T. Cadell.

Taba, H. (1962),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Harcourt, Brace & World.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lstad, W. B. (1992), Economics Instruction in High School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4), 2019-2051.

<Abstract>

Vertical Articulation of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in the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Sun Ho Hwa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are presented in the economic domain of the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in eight high school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findings show th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develop market-based analytical concepts, while high school Integrated Social Studies shifts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comparison of economic systems. High school Economics then centers again on market principles, market equilibrium,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indicates a shift in the central explanatory framework across school levels. The textbook analysis shows that capitalism and the market economy are often conflated or juxtaposed, and that some textbooks present monopoly capitalism, market failure, the Great Depression, and modified capitalism as a simplified causal linkage. The study suggests presenting the market economy as an analytical concept for explaining the price mechanism and resource allocation, and capitalism as a systemic concept shaped by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conditions.

Key words: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Capitalism, Integrated Social Studies, Market Economy, Vertical Articulation

원고접수: 2026년 07월 10일 심사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8월 24일
게재확정: 2026년 08월 24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ho3137@scnu.ac.kr).